

4/9/17

설교 제목: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욥기 38:1-41

- (욥 38: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욥 38: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 (욥 38: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절관주** 시 104:5, 잠 30:4
- (욥 38: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절관주** 잠 8:29, 사 40:12
- (욥 38: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절관주** 욥 26:7
-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절관주** 욥 1:6
- (욥 38: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 (욥 38: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절관주** 잠 30:4
- (욥 38:10) 한계를 정하여 문빋장을 지르고 **절관주** 창 1:9
- (욥 38: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 (욥 38: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절관주** 창 1:5
- (욥 38:13)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 (욥 38:14)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 (욥 38: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절관주** 시 10:15, 시 37:17
- (욥 38: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 (욥 38: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 (욥 38: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 (욥 38:19)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 (욥 38:20)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절관주** 욥 26:10
- (욥 38:21)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 **절관주** 욥 15:7
- (욥 38: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절관주** 사 30:30
- (욥 38:23)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 (욥 38:24)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흠어지느냐
- (욥 38:25)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리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절관주** 창 7:11
- (욥 38:26)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절관주** 시 107:35
- (욥 38:27)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 (욥 38: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절관주** 시 147:8, 렘 14:22
- (욥 38: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 (욥 38:30) 물은 돌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 (욥 38:31)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 (욥 38:32)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절관주** 암 5:8
- (욥 38:33)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절관주** 시 148:6, 렘 31:35
- (욥 38:34)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절관주** 욥 22:11, 욥 38:37
- (욥 38: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 (욥 38:36)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절관주** 욥 32:8
- (욥 38:37)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 (욥 38:38)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 (욥 38:39)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 (욥 38:40)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욥 38: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에 관한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공박과 변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부당성을 일관성있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욥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41 장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긴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풀릴 수가 없기에 욥은 이 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이 듣고 싶어했던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행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한 이런 일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피조물인 욥은 단지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로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 욥의 무지와 무능을 집요하게 일깨우십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위치를 이보다 더 적나라 하게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에게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감히 나에게 따지고 드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욥이 자신의 무죄과 결백을 주장하면서 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욥은 종반에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과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자기 의가 남아있는 욥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사정없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를 깨부수십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창조의 신비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 부족함을 자인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 38: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함부로 단정하고 각자 자기 논리를 전개했던 자들에 대하여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큰 권능과 위엄을 지닌 존재인지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회오리 바람, 기타 신비한 자연 현상은 신적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폭풍은 욥이 살던 사막 지대인 근동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귀한 자연 현상이었기에 신적 현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 욥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배려하여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첫 질문을 하십니다.

(욥 38: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38: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계속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질책하십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인데 하나님인 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 따지고 드냐는 것입니다.

'허리를 묶고'라는 표현은 싸울 준비를 한다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네가 네 주장은 다 옳고 나는 틀렸다고 하는데 과연 네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잘 났는지 우리 한 번 맞대결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의 창조 사역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따지는 욥을 향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대신 오히려 당신의 창조 사역에 대해 질문 형식을 빌어 말씀하시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 하나님과 욥은 결코 비교되어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욥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창조주로서의 무한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써 피조물인 욥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2.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욥을 설복시키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지식과 논리만을 앞세워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 38: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욥 38: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창조에 대해 알고 있느냐, 알면 말해 보라고 하십니다.

욥이나 친구들이 겨우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추수의 법칙이 실현된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면서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욥 38: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 38: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욥 38:10) 한계를 정하여 문빋장을 지르고

(욥 38: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여서 바닷물의 오만스러운 힘을 제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욥 38: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욥 38:13)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욥 38:14)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욥 38: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아침을 명해서 동을 트게 하지 못함을 언급하며 욥의 무능함을 지적하십니다.

(욥 38: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욥 38: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욥 38: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 38:19)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욥 38:20)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욥 38:21)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깊은 바다 속이나 사망의 문을 들여다 본 적이 없으며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조차 못하고,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욥의 무능함을 지적하십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욥을 빈정거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창조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질서의 신비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욥에게 그런 것도 모르는 네가 감히 왜 내 앞에서 네가 옳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느냐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욥 38: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욥 38:23)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욥 38:24)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흠어지느냐

(욥 38:25)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욥 38:26)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욥 38:27)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욥 38: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욥 38: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욥 38:30) 물은 돌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눈을睽아 놓은 눈 창고나 우박을睽아 놓은 창고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해가 뜨는 곳, 동풍이 불어 오는 시발점에 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비, 천둥, 번개의 신비, 풀이 돋는 이치,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욥 38:31)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욥 38:32)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욥 38:33)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 38:34)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욥 38: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욥 38:36)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욥 38:37)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욥 38:38)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배치하고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폭우와 강물의 범람, 번개도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욥이 창조 사역에서 한 일과 알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욥에게 피조물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창조 사역을 언급하심으로 욥의 무지와 무능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창조주란 말이나?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에게 따지느냐? 거기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일들을 하지도 못하면서.....”

사실 욥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모습 속에는 욥 자신의 독선이 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논리 속에도 인과응보론이나 추수의 법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욥도 자기 자신의 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 보면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옳은 일인 당연한 일을 하고 살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인과응보나 추수의 법칙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성도 하나 하나의 개인 문제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현현하시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은 옴에게서가 유일합니다.

옴은 피조물인 인간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옴의 문제에 대해 직접 나타나시어 자세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성도 개개인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2.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만을 믿고 절대 의지하며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옴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대신 당신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경영해 나가실 때 인간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일일이 설명을 해 준다고 해도 무지한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순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강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간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자신이 멸망할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 무지한 너희는 따지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복받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제발 그렇게 살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신을 믿고 살다가는 필연코 망합니다.

이시간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